



박지성 “봐주기 없다” 이동국

내일 새벽 FA컵 8강전 맞대결 가능성

태극전사 맞대결 '결정판'이 다가온다.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11일 오전 2시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 외곽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2006~2007 잉글랜드 FA컵 축구 6라운드(8강)에서 맞붙는다. 프리미어리그 4호 이동국보다 먼저 진출한 박지성, 이영표(30·토트넘), 설기현(28·레딩 FC)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맞대결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작년 4월 박지성이 이영표의 뒤에서 볼을 빼앗아 웨인 루니에게 어시스트를 해줬던 순간. 냉정한 승부의 세계였지만 둘이 나중에 시선을 따로 둔 채 슬며시 손을 맞잡은 사진이 포착돼 진한 우정을 전하기도 했다. 두 시즌에 걸쳐 세 차례 맞붙은 박지성과 이영표는 지난 달 그리스와 새해 첫 A매치를 치

르기 사흘 전 잠시 동지에서 적으로 변했다. 박지성과 설기현은 지난 달 FA컵 재경기를 치르는 바람에 열흘 간격으로 두 차례 만났다. 두 번째는 박지성이 오른쪽, 설기현이 왼쪽 날개로 정면에서 충돌했다. 이영표와 설기현은 작년 11월 딱 한 번 마주쳤다. 설기현이 새드 스트라이커, 이영표가 오른쪽 풀백을 뒀고 68분간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 박지성과 이동국은 처음부터 만날 일이 없었다. 박지성이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이동국이 1998년 프랑스월드컵부터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소속 리그는 달랐다. 대표팀에서 미니게임을 할 때 조끼를 입고 맞대결한 적이야 꽤 많지만 어디까지나 전술 훈련일 뿐이었다. 출전 분위기는 무리였다. 8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8결승전(프랑스)에서 승리를 지키는 조커로 투입됐

던 박지성은 FA컵에선 네 경기 연속 선발 출격하고 있어 이번에도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이동국도 첫 선발 출전을 기대하고 있다. 고작 9분만 뛰던 지난 달 25일 레딩전에서 골 포스트를 맞으며 '동화같은 데뷔'를 한 이동국은 2월28일 FA컵 웨스트 브로미치전에서 승부차기 실책을 했지만 슈팅 네 개를 때려 활발한 공격력을 과시했다. 지난 4일 뉴캐슬전에선 정규 시간으로는 가장 긴 30분을 소화했다. 좌우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박지성과 공격수 중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큰 이동국은 함께 출전하기만 한다면 그라운드 곳곳에서 조우하는 장면을 연출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지애 시즌 첫 우승

타일랜드 오픈 2위와 10타차 완승

한국여자프로골프의 1인자 신지애(19·하이마트)가 타일랜드 레이디스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컵을 안았다. 신지애는 9일 태국 방콕 그린벨리골프장(파72·6천291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랐다. 올해 들어 신지애는 여자월드컵 3위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호주여자오픈 공동 5위, 그리고 ANZ 레이디스마스터스 준우승 등 잇따른 해외 원정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끝에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하늘(19·코오롱)이 4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 일찌감치 우승을 예고

했던 신지애는 1번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이후 이글 1개와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2개만 보태 무려 10타차 완승을 거뒀다. 나다에(20·리엔코)가 함께 이븐파 216타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지은희(21·캘러웨이)와 김하늘이 1오버파 217타로 공동 3위에 올라 상위 4명 모두 한국선수였다.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한 언더파 스코어를 작성해 '한국여자골프 최강'임을 입증한 신지애는 30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나비스코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몽준, FIFA 부회장 4년 더

정몽준(56) 대한축구협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을 4년 더 맡게 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본부에서 아시아 지역 FIFA 부회장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정몽준 회장이 단독으로 신청해 경선 없이 2011년 5월까지 재임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1994년 FIFA 부회장이 된 정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 17년간 재임하게 된다. FIFA 회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정 회장은 5월 30일 치러질 차기 FIFA 회장 선거에는 나가지 않고 오는 2011년 선거 출마를 검토할 계획이다. 1998년부터 FIFA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제프 블래터(71·스위스) 현 회장은 이미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등락 마감일까지 단독 출마해 4년 더 아시아 축구 수장을 맡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탈리아의 로미나 오프란디가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피시픽 라이프 오픈 테니스 대회 1라운드에서 릴리아 오스탈로(미국)의 공을 받아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 출발 좋다

PODS챔피언십 1R 공동 2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 후보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이 PODS챔피언십 공동 2위에 나섰다. 앤서니 김은 9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탬파베이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7타를 쳐 선두 클리프 크레슬지(미국)에 2타차로 따라붙었다. 작년 대회 우승자인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2언더파 69타로 선두와 4타차 공동 13위에 올라 타이틀 방어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올해 투어에 데뷔한 앤서니 김은 올 시즌 출전한 일곱 차례 대회 가운데 가장 순조롭게 출발했다. 앤서니 김은 이날 평균 비거리 309야드의 호쾌한 드라이브를 거듭없이 날렸다. 그러면서도 페어웨이 적중률은 61.5%로 양호했고, 그린 적중률은 77.8%로 11위에 올라 높은 편이었다. 또 퍼트 수는 28개, 그린 적중수 퍼트 수 1.7개로 전반적으로 준수한 플레이를 펼쳤다. 올해 PGA 투어 카드를 확보한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앤서니 김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등 미국내 언론이 PGA에서 주목할 선수로 손꼽고 있다. 이니스브룩골프장에서 두 차례 우승한 최경주도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2개로 2타를 줄이면서 무난한 출발을 했다. 최경주는 페어웨이 적중률이 30.8%로 흔들렸지만 아이언과 퍼트가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와 나상욱(23)은 언더파 대결에 끼지 못했다. 위창수는 버디 2개, 보기 3개로 1오버파 72타를 쳐 공동 61위에 머물렀고, 나상욱은 3오버파 74타로 공동 100위까지 떨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가 시즌 첫 승 사냥에 재도전한다. 광주는 11일 오후 3시 부산 아시안드컵경기장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2007 삼성 하우젠 K-리그 2라운드 경기를 벌인다. 지난 4일 전북에 0-2로 패해 개막전 승리를 놓친 광주는 상대적 약체인 부산을 상대로 올 시즌 마수걸이 승리를 올린다는 각오다. 광주는 부산과의 역대 전적에서도 13전 8승 2무 3패(18득점, 11실점)로 절대적 우위에 서있다. 다만 부산의 두 용병 투시아노와 윌리엄은 경계 대상이다. 전남드래곤즈도 같은날 오후 3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FC서울과 맞붙는다.

광주·전남 “마수걸이 꼭 한다”

내일 부산·서울 상대 시즌 첫 승 재도전

지난 3일 지난해 K-리그 우승팀 성남에 맞서 1-1 무승부를 이끌어 낸 전남은 이번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않은 않다. 전남은 수비수 김진규와 강민수가 올림피아 대표팀에 차출돼 전력 차질이 불가피한 반면 서울은 박주영의

잔류로 공격진이 더욱 강화된 상태다. 여기에 전남은 지난 7일 무더위 속에서 방목대학교 아시아축구연맹(AFC)챔피언스리그 원정경기를 치러 체력면에서도 부담이 있다. 허정무 전남 감독은 “체력이나 선수 구성 등 모든면

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홈 개막전인 만큼 정신력을 재무장해 홈 팬들에게 꼭 첫 승을 선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K-리그 2라운드 일정. ▲10일 경남-포항(오후 3시·창원종합운동장), 제주-성남(오후 3시·제주월드컵경기장) ▲11일 대구-인천(오후 3시·대구월드컵경기장), 대전-울산(오후 3시·대전월드컵경기장), 전북-수원(오후 3시·전주월드컵경기장), 부산-광주(오후 3시·부산아시안드컵경기장), 전남-서울(오후 3시30분·광양전용구장)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